대학원생 세미나 14. 06.04

Lydia H. Liu, The Clash of Empires: the Invention of China in Modern World Making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2004) 발제: 최인호

최인호: 19세기의 제국주의에 대한 공포. 현재의 중국인에게도 이런 인식이 남아있는가? 국가, 주권이라는 주체의 형성을 탈근대적으로 이문명의 만남 속에서 subject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국제정치에서 보면 이를 scientific하게 분석했다고 봐줄 수 있는가? 구성주의적 입장에서 본다면 이러한 탈구조주의적, 언어를 통한 분석을 통해서. 좋게 생각하면 구성주의가 하지 못한 것 주체 생성의 과정의 이론적 틀, 역사 제시. 무의식의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이를 과학적이라고 볼 수 있나?

전재성: 이 학자, 국제정치학자들과의 소통은 별로 없는 듯.

최인호: 19세기의 연구들 많이 하시는데, 국제정치의 구조를 이론화하는데 보완의 방법이 있는가? 기호 등을 통해서 나타나는 갈등을 본 것인데.

용채영: ‘기호학적 전회’라는 말, 수업에서 다룬 국제정치학, 이론에서의 기호학적 ‘전회’가 아님. 저자는 19세기의 기호학의 발전의 국제정치적 컨텍스트를 설명, 제국주의적인 부분이 있었다고 설명하면서 제국에 대한 기호학적 접근의 필요성을 제시함. 기호학의 등장 자체가 전회라고 하는데, 그것을 통해 국제정치 현상에 대한 기호학적 전회, 접근의 정당화가 되는가?

중국의 화이관이 고정되어 있지 않다고 한 부분, 중국의 ‘이’관념이 변화하면서 조선에 대한 인식은 어떻게 변화했는지도 보면.. 청/조선 간의 ‘이’역시도 super sign으로 볼 수 있나, 조선의 입장에서의 오랑캐의 의미와 중국이 보는 오랑캐가 equal했는지 등

최인호: Lydia Liu는 그것들을 다 한 세트로 분석을 하는 것 같다. 애초 주권이라는 개념 자체가 만들어진 것의 기호학적 배경, 그렇기 때문에 이를 기호학적 분석을 해야 한다. 기호학적 전회라고 했을 때는 이게 국제정치를 제대로 보려면은 기호학적인 것을 봐야 한다. 주권이 기호학, 기호학, 인위적으로 관념이 전파가 되었다는 현상 자체가 새로웠다. 기호적인 현상이 있었을 때 기호적인 것을 본다는 것은 어렵지 않다. 이론이라는 것, 이론 안의 내재적 발전이 있지만 대개는 새로운 국제정치적 현상이 나왔을 때 이런 이론으로 감. 탈 냉전, 웬트가 뜨기 시작한 것. 훨씬 구성주의적인 것을 말한 다거나. 커뮤니케이션의 발전, 기술적인 배경은 빼고 논의함. 사실은 기호학적 현상이 있으려면 그런 기술이 있어야 함. 그런 컨텍스트를 같이 보려는 것은 plus적인 요소가 아닌가? 기호를 논의했지만. 지도라는 기술이 만들어져서 근대국가체제가 나타났다. 그런 기술과 같이 정치적 개념이 같이 간다.

조선의 사례를 본다면 속방의 개념이 될 수도 있을 듯. 독립국가가 자주적이면서 중국에 속방이다라는 의식. 이것이 충돌하면서 청도 조선을 식민지 다루듯이 다룸.

용채영: 푸코, 아감벤 등을 비판하면서 탈식민주의적 관점에서의 주권적 사고와 주체의 등장을 설명하고 있음. 로빈슨 크루소의 이야기가 드러내는 것은 제국인 서구 대 식민지 간의 관계에서의 terror의 발생임. 이를 영국 제국과 청 제국 사이에서도 설명하는데, 질문은 서로를 종속화하고자 하는 주권적 사고가 제국 대 제국의 마주침에서 비롯되는 것인지, 제국 대 식민지, 비 주권국 간의 관계에서도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주권적 사고인지? 제국 대 제국의 만남이었던 영국과 청의 만남이 아니라 조선과 미국 등의 만남에서도 설명 가능?

최인호: 담론의 불평등 구조로 간 것은 아님. 폭력적 구조는 사라진 것이 아닌가. 여전히 자신들을 주권국가가 되고, 상대는 아래에 놓으려는 욕망이 깔려있는지 모른다는 발상. 주권적 사고가 제국적 사고다. 감정, 무의식. 같이 깔려있다. 탈구조주의적 시각이 깔림. 주체의 national thinking이 아니라 담론에 의해 기제. 그게 imperial이랑 sovereign의 기제인지 설명하고자 하는지.

주권적 사고, imperial 사고. 주권적 사고는 imperial의 사고로 분리할 수 없다. 제국이라는 것은 이미 다른 제국을 인정할 수 없다. 분명 barbarian이고 communication이 아니라 이성적 소통이 아니라 폭력으로 강제하고. 그런 것으로 이해됨. 거부감이 드는 것, 중국이 식민지였나? 중국은 중국 나름의 제국 의식이 있었고, 근대적 주권은 아니고.

홍성표: 오랑캐 ‘이’라는 것이 어원. 동이, 화를 가져가는 것. ‘동’의 문명의 상호작용 속의 과정을 그림. 여전히 헷갈리는 부분, 중국을 피해자처럼 썼다? 텐진조약이 1800년 대, 100년 조선-청의 관계가 간도문제, 1712년 두만강, 토문강 갖고 싸움. 토문강이라고 국경을 설정했다가 청이 힘이 세지면어 토문을 두만으로 읽으면서 지리적 경계를 확 넓힘. 여기서도 단어를 갖고 보는 제국적인 성향을 감안하고 봄. 저자의 결론, 역사 속에서 이것이 가진 객관적인 것을 규명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정치적 맥락에서 변화했는지 추적하자고 한다. 알겠다. 주는 함의가 뭔지? 이것을 통해서 단어, 기호 등의 해석이 그걸 해석하는 시기에 힘을 가진자가 누구, 어떤 상황, 방식인지. 힘이 가진 쪽의 제국주의적 성향, 언어구조, 인식체계, 의미로 단어가 결정. 이런 논의가 얼마만큼의 의미? 기호가 계속 변화를 한다면.. 이해를 할 필요가 있나?

최인호: 실증적 방법이 아니라 과학적 사회과학의 방법에서 보면.. 아예 연구대상의 초점이 다름. 객관적으로 어떤 중국의 실체를 따질 수 없고, 연구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만들어진 변환 과정 등. 여기서 어떻게 썼다는 것은 아님. 바뀐 것은 정치적 해석에 따라 달라짐. 반성적인 접근법을 한다.

홍성표: 역사적, 정치적 맥락에서 추적을 해야 한다. 그 당시의 시기, 힘을 가진 쪽이 중요. 이/바바리안으로 해석한 것의 국제정치적 의미? Turn의 표현? 이런 역사들이 있어서 앞으로는 언어가 가진 해석의 상이성 등에 집중해야 한다는 결론인가?

용채영: 저자가 본 연구를 통해 갖는 규범적 주장이 거기까지 확대되지는 않는 듯. 권력현상이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면서 권력이 작동을 드러내주기..?

최인호: 한편으로 critical thinking? 반성적으로 경험연구를 어떻게 하나?Agency를 강조. 탈구조주의이긴 하나, 다른 번역이 있었다. 다른 번역이 불가능하지 않았다. 역사적인 오랜 분석으로 .. 대안적 번역이 있었다. Agency의 강조 정도?

홍성표: 동아시아 국가들, 용어들 수입과정에서 변질. 오랑캐 ‘이’, 중국, 동아시아, east asia라는 단어. 순수 동아시아에서 제시된 단어들이 제한적이다. 그런 생각도 들면서 비서구의 국제정치이론. 단어로 다시 생각해보자, 비 서구라는 것은 의미. 단어 자체가 대립구도로 가지 않는가? 서구에서 가져오는 것도 많은데 서구의 것도 결국 가져오게 됨. 결국 Non-Western이 될 수 없다. 지리적인 의미에서는 비서구인데, 국제정치적으로 비서구 IR이라고 지칭하는 것이 적절한가라는 생각. 미학적 전회, 언어적 전회, 기호학적 전회. 전회라는 단어의 정치적 대립구도가 있다는 생각. 비서구 IR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생기는 제약이 있겠다라는 생각.

최인호: 중국의 정치철학 이해가 깊었던 사람들은 이를 피할 수 있었다. Foreigner를 barbarian으로 번역하지 않을 수 있었다. intellect들을 열심히 개발해서 주관의 지평을 넓히면 정치적 소통은 있을 수 있는지 모른다. 아직은 비서구라는 이름이 나온 것이 반성을 해서 나온 것임. 그런 label을 어느 정도 사용해야 하는 시기가 있다.

홍성표: Western이 있어서 post-western이 있는 듯.

최인호: 별건 아닌 기호학의 문제, 삶과 죽음의 문제로 직결되었다는 것. 별 반성 없이 서양의 것, 19세기에 축적되어 만들어온 것. ‘이’라는 것. 주권이라는 것, 고정된 것. 고정되지 않았다고 보지 않는 것. Lydia의 생각. 처음의 양쪽의 주권을 인정했을 때, 16세기 만남의 과정에서는 emperial하지 않았다고 함. 역사적으로 변화함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고. 이 사람의 sovereign thinking은 19세기 전후의 역사적으로 형성된 근대국가의 sovereign thinking. 단순한 최고의 권위? 근대국가적인 sovereign의 의미? 푸코 이론도 유럽중심적이다. 지금은 폭력주체 사라지고 규율권력이 온다고 하는 것 자체, 유럽 안에서 볼 때 그런 것이지 여전히 비서구-서구 사이는 폭력이 구조적으로 있었다가 하나, 애초 주권이 너희들이 만든 것이 아니다. 상호인정 등. 그로티우스, 발상 자체가 아시아에서 왔다. 항해 하게 놔두기.

데리다 부분이 재미있었음. 개념화가 어떻게 될까? 현실과 부딪치면서 개념화가 아니라. 찝찝해서.. 번귀라는 특정한 말의 한정. 실증주의, 제국. 개념화, 개념과의 현실이 결착, hook-up되는 정도의 차이이다. 어떤 것은 인간의 정신작용과 무관하게. 주관적, 반성적 작용을 통해 결합되는 개념도 있고.

전재성: 기호, 소쉬르, 피어스 19세기 말 사람들. 그 때의 그 전까지는 언어의 사적연구에 집착해오다가 언어연구에서 기호연구로 바뀜. 기의/기표가 arbitraire하다. 기호가 너무 많아져서 언어를 기호 간의 차이에서 발생해야 한다. 기술변화적 상황. 언어문법구조의 차이체계만이 아니라 사회적 convention에 의해서도 만들어진다. Convention의 범위가 국가 간의 조약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 19세기의 상황이다. 우리의 고민, 물적구조적인 구조가 객체를 구성하는데 중간 단계의 여러 장치들이 있는데 그 중간이 심적구조, 기호, 언어의 구성. 언어보다 넓은 의미의 기호로 보고 기호의 내적문법구조+사회적 구조. 사회적 구조의 international한 것이 처음 나온 것이 19세기다. 리디아의 관심은 international이 empire-colony의 관계이다. 기호에 의미부여 과정이 제국과 식민지의 충돌, multi-lingual, 그 과정이 얼마나 정치적인가. 기호의 의미부여과정의 사회성이 있고, 여기에 권력이 들어감. 기존의 푸코, 아감벤 등의 네그리, 하트. 푸코, 아감벤 까지는 empire-colony. 아감벤은 비상상태 권력, 슈미트+푸코임. 그런 주권적 권력형성의 예외성 부분의 empire-colony 관계를 안 본다. 이를 볼 시각이 필요하다. 한 사회 내의 안/밖으로 주권 생각. 두 개의 주권이 부딪칠 때의 의미부여과정을 생각해야 한다. 현재의 주권관념은 포스트 콜로니얼 봐야 함. 이를 보는 국제정치적 현실, 식민지-제국 관계의 현실과 기호 사이의 관계, 두 개의 empire가 부딪칠 때, empire는 그 자체로 주권. empire밖에는 아무 것도 없어야 함. 두 개의 global sovereign이 부딪칠 때 두 정치체의 부딪침의 물적구조가 영국민, 중국민들에게 마지막으로 정착되는 과정에서 기호의 역할이 크다. 사실 ‘이’가 공존적, 평화로운 개념이었는데 상호배타적 개념으로 갔다. 중국은 방어적, 처음 그런 의도 없었는데 영국은 그런 제국을 부서야 함. 위튼, china는 nation-state의 개념으로 구겨짐, 어떻게 청 제국에서 ‘중국’으로 구겨지는지, 좁히는 과정. 이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측면들이 기호의 측면에서 나타난다. 번역의 기제, super-sign들을 만들어내서 만드는 의도는 청 제국의 제국성을 부정할 수 있는 작업을 하는 것. ‘이’라고 이야기할 때, 평화적으로 해석해주면 청의 제국성을 인정해주는 것. 두 개의 공유할 수 없는 서양의 제국, 둘 중의 하나가 부정되어야 하 는 것. 제국성을 말살하려는 의도, 청 제국의 자문화중심주의를 보여줘서 영국이 중국과 공존하지 못하게, 폭력논리의 기호적인 작업으로 보여주고자 함.

책 review들을 보면 주권/주권적 사고가 불명확하다고 지적됨. 물적구조의 이야기는 안 하고, 국제정치학자들의 물적구조의 이야기를 안하면서 추상적 sovereign으로 놓고 기호학적 작업만 놓음. 아편전쟁,청-영국 제국, 근대외교제도가 들어올 때 중국을 어떤 sovereign로 만들려고 했는지, 그 전략적인 의미를 보여주진 않음.

개념사적 연구, 기호학적 연구, 캠브리지 학파의 언어적 접근도 현재 나뉘어서 가고 있음. 저자의 이야기는 기호는 historical contest라는 것에서도 개념사와 비슷. 개념사접근은 개념은 정의되지 않아야 함. 기호학적 연구는 기호에 초점을 두고 구조 분석, 개념에 초점, 사상이나 이데올로기 초점을 두는 학파. 범주가 기호가 제일 작고 추상적임. 어떤 것이 가장 효과적인가? ‘이’는 concept보다는 sign이라고 봄. concept은 그 보다는 추상적임. ‘이’는 이보다는 작은 단위인 sign임. 그 다음에 개념단위로 가고, 주권, 제국주의 이런 오리엔탈리즘의 사상 단위로 올라가야 한다는 다양한 논의들이 있음. 인호의 논문, 리바이어던이 일종의 외부 상상계에 대한 signifier라는 것인 듯. 구조, 기호가 물적구조나 역사적 구조에 의해 규정되기도 하고 기호를 내재화한 인간 들이 물적 구조 만들기도 함. 어느 단위에서 구조, 개체 사이의 중간 단위의 연구 범주를 둘 것인가?

Collective memory, emotion, language임. 언어의 기본 분석단위를 어느 분석단위로 봐야 하는지? 기호단위로 리디아는 잡음. 효과적이긴 한 데, 그렇게 잡는데 너무 산발적인 이야기가 있음. 국제법 챕터, 자연법-성법. Positivist는 공법이 서구 world view과 합쳐져서 기호학적 변형인지. 주권국가로 격하시키고 위튼의 세계관과 중국의 세계관을 commensualible하게 만들려는 두 개의 과정 작동. 배제-포함의 논리 작동을 만들었다. 그런 기호들이 쌓여서 전체적을 제국-식민지 관계를 어느 정도로 보여줄 수 있는가, 그런 기호들은 multi-lingual하게. Civilization들의 충돌이 아니라 제국끼리의 충돌. 그런 면에서 의미가 있는데, 적정 단위의 분석수준이 있음.

기호학 이야기는 초보적인 이야기. 앞의 기호-현실 사이 관계가 ‘자의적’이다. ‘이’의 정의가 역사 내재적인 것이 아니라 주권 개념 정의하면서. 개념은 자의성 상정하진 않음. 개념은 역사적으로 현실과 관계를 맺어서 convention에. 기호의 자의적 개념에 대해선 차이. Semiotic turn의 relation을 보는 관점을 보는 것. 이를 알고 기호학적 전회. 외생 변수. 통하는 것은 데리다 같은 접근법과 통합. 전파, 개념사 영, 불, 독을 어떻게 합치냐 고민. 다 똑 같은 언어철학을 다루는데 통합이 안 됨. 공통적 문제의식이나 분석수준, 어프로치가 다르다. 논점을 다르다. 셋을 어떻게 합치냐, 구조-개체를 매개하는 아비투스의 언어 층위가 중요하다. 이를 모르면 국제정치를 정확하게 파악 못한다. 구조주의를 한 쪽으로 밀침. 기호 형성의 embodied된 상태, 심적구조의 내재화된 언어적 문법구조도 있고, 언어화된 무의식 구조도 있고, 이를 embedded한 감정 요소도 있음. 다 어떻게 연결되는지 모르면 구성주의적임. 주체형성, 리바이어던의 상징계. 무의식과 언어 부분.

심적 구조 스펙트럼 정리. 국제정치적 구조 속에서 개체가 효과로서 발생하는 것임. 다양한 층위를 갖는다. 그런 면에서 라투르의 함의? 미시/거시의 구분, 네트워크 들 간의 위계구조를 부정. 다 assembly. 사물-인간의 network가 하나고, 전혀 다른 social network가 작동하는데 뒤얽힘. 뒤의 네트워크 분석이 중요하고, 네트워크들 간의 위계질서 없다. 심적/물적 구조가 어떻게 assembly되는지 봐야 한다.

탈식민주의, 국가의 sovereign이고. 예외권력. 호모 사세르. 이런 리디아, 그런 sovereign이 두 개 부딪칠 때 충돌 안 보았다. 중국 관점에서 보면 억울하다. Universally sovereign했는데 근대적 제국성을 영국이 축소시킬 때 자의적인 기호적 작업을 했다. 이를 드러내야 봐야. Sovereign의 colony를 봐야 함. IR의 역사를 보고 한 것이 아님. 이론을 비판하면서 나온 이야기, 중국에 대한 역사적 배경이 덧붙여 져서 나옴.

최인호: 국제정치와 다르다, 물적 구조가 빠짐. 위의 언어, 관념적 구조와 따로 도는 것 같지 않음. 분석은 안 하지만 violence 등. 물적 구조에서 영국이 이긴 다음에 sign으로 논의 가능. 국제정치에서 물적구조만 먼저 보는데, 이후 기호적으로 감.

전재성: 19세기의 전쟁, 아편전쟁의 경제구조 등의 이야기가 먼저 나오고 그 위의 기호학적 변형이 실제 물적 구조의 변화에 영향을 준 부분, 이후의 물적 구조의 변화에 상호작용 분석이 필요.

기호학자들은 ontology는 구조주의 가까움. 실제 존재 자체가 의식으로 구성된다고 보진 않음. 구조주의, 과학적 실재론 가까움. Signified된 것이 내 signify에서 구성된다고 이야기하진 않음. 존재론적 dualism? 그러나 인간의 의식의 객관주의? Jackson은 존재론 카테고리만 남음. 존재론적 가정이 누구나 있고, 인식론적 가정이 필요. 뭐가 우선적인지? 같은 존재론 가정이어도 인식론이 다를 수가 있음. 인식론의 가정이 존재론으로 breakdown이라고 함.